

#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4.8. ~ 4.14.)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레 11 - 18	시 13 - 22
	개인	잠 26 - 전 1	살전 5 - 딤후전 3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믿음(5)		
	<p>요한복음 14장 6절</p> <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p>		



**데살로니가전서 5장 / 종말의 교회****개요**

- 1-11 주의 날을 기다리는 교회  
 12-25 평강의 하나님의 뜻  
 26-28 끝 인사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경에서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렸고, 그 날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때와 시기는 주께 속한 일임을 분명히 하며(우리는 그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교회에게 맡겨진 일은 그 날을 깨어 기다리는 일임을 강조합니다(1-10). 그 기간 동안 교회에 강조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11절). 그 날을 바라보는 교회는 혼란스럽지 않으며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일은 질서를 따라 화목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12-15절). 그러한 일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는 평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16-25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분주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날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관심을 쏟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미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날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지냅니다. 교회는 장차 있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교회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 박해는 인내를****개 요**

1-2 인사

3-12 교회의 인내와 믿음

데살로니가교회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꽃 핀 배경은 박해와 환난이었습니다(3,4절).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5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6-10절).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교회는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11절).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는 영광 받을 것입니다(12절).

교회는 좀 처럼 사라지지 않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긴 생명력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교회를 보존하며 다스림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며 할 일들이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든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일들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역사를 바라고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담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 교회가 받은 전통****개요**

1-12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13-17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교회는 미혹하는 자들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1-4절). 그런 위협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5절).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4-12절). 그러므로 그런 미혹 앞에서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신앙의 전통을 붙잡아야 합니다(13-15절). 이 뜻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16,17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13,16절).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전통입니다(15절). 흔들리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폐함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지쳐 흔들리고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시길, 우리가 선한 일과 말에 힘쓰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굳건해지길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굳건하게 하는 힘이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 재림과 일상****개요**

- 1-5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한 기도
- 6-15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라는 권면
- 16-18 끝 인사

주의 말씀이 퍼지길 위해 기도합니다(1절). 그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 전하는 자들을 건지고, 굳건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2,3절). 또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4,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6-12절). 일상의 게으름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6절). 이에 자기 마음과 형제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13-15절). 평강의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16절).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런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계도할 책임도 있는데, 그 태도는 원수처럼 멸망할 자로 대함이 아닌, 형제와 같은 따뜻한 권면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과 교회를 지키며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림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함께 서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4월 12일(금)

레19

시19

잠30

딤펢전1

## 디모데전서 1장 / 믿음의 선한 싸움

### 개요

1-2 인사

3-11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12-20 선한 싸움

바울은 주 안에서 아들로 대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1,2절).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3-7절). 율법은 악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어진 것으로써,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좋은 도구임을 가르칩니다(8-10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율법과 대치되지 않으며, 적법한 율법의 사용은 그 복음 안에 포함됩니다(11절). 그러므로 주의 긍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전 삶을 버리고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2-17절). 그런 수고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18-20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하고, 양심을 버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죄에서 건져 긍휼을 입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는 자로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향해 끊임없이 맞추어 가려는 태도요, 지향이요, 시도요, 애씀입니다. 이것이 싸움인 이유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참으로 선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하나님, 우리 삶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과 이 땅의 곤고함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디모데전서 2장 / 기도의 원리****개 요**

- 1-4 간구와 기도
- 5-7 주님과 나(바울)
- 8-15 남녀 성도를 위한 권면

기도는 다양한 방식(간구, 기도, 도고, 감사)으로 행해집니다(1절).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2절). 그 목적은 신자들의 경건과 연결되며,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2-4절).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5절). 우리는 그분께 그리스도의 중보로 아될 수 있습니다(5,6절). 사도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7절). 그러므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여자들이 신앙으로 단장하기를 권면합니다(8-15절).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기도를 말씀을 따라 점검하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토대입니다. 또한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 삶의 거룩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타락 때에는 여자가 타락의 통로가 되었지만, 주님의 질서 안에서 이제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남녀 모두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해,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 삶을 단정하게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신앙을 지키며, 죄를 억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 경건의 큰 비밀****개요**

1-13 감독과 집사

14-16 경건의 비밀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고 임하는 직분입니다(1-7절). 집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맡을 직분입니다(8-13절).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한 덕목입니다(15절). 이와 같은 덕목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은 우리 신앙고백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16절).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모호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며, 그저 예의를 갖춘 단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신앙고백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써, 외인들에게는 선하다 인정을 받으며, 가정에서는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도 바른 생활을 살기에 힘쓰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 책임과 자격은 직분자만 눈여겨 볼 덕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속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 순모임

### 작고 강한 교회(2)

Part 1. 작은 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Part 2.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다**

Part 3. 작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Part 4. 작고 위대한 교회가 되다

\*칼 베이터스의 '작고 강한 교회'를 토대로 다시 쓴 글입니다.

작은 교회를 이해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작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와 큰 집단에 속해 있을 때에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기능의 차이도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러나 신학은 교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63)

저자는 30년 목회 경험을 회상하며, 교회 리더십에 관한 책과 컨퍼런스들이 자신의 작은 교회에 적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간의 많은 실패로 좋은 의도와 시도를 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대형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책과 컨퍼런스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 성공적이었던 방법들을 적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명하거나 검증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 Point 1: 작은 교회는 다르다

이제 작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숫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단이 클수록 행동을 예측하기 쉽고, 집단이 작을수록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큰 집단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도 전체 행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여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전체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표본이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단이 작을수록 개개인의 개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작은 교회가 개성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유, 또는 독특한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 Point 2: 작은 교회는 예측이 어렵다

교회 규모에 따라 출석 인원의 변화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 출석 인원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2천 명일 경우, 10퍼센트면 200명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출석 인원의 참석율이 크게 변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출석 인원 50명. 정상적인 주일.

둘째 주: 출석 인원 25명. 독감 시즌 또는 새해 처음 날씨가 좋은 주일

셋째 주: 출석 인원 75명. 유아 세례가 있는 주일. 가족 모두 참석.

넷째 주: 출석인원 50명. 또 하나의 정상적인 주일.

그러므로 일시적인 숫자의 변동에 일희일비하거나 신학과 교회의 방향을 재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 Point 3: 작은 교회는 큰 비중의 숫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저와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이 작다고 해서 우울해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칼 베이터스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들이 작다고 해서 우울해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그랬고, 나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신다.

지난 주일도 힘든 하루였을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다. 주일이 되기 이틀 전에 안내와 교육과 찬양의 순서를 맡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주일에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난방 기구와 전등과 음향기기의 스위치를 켜다. 자원 봉사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급히 서둘러 대신할 사람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적은 숫자의 신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속으로 '잠시 후면 사람들이 모두 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할 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보다 비어 있는 자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성심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최근에 병을 앓다가 회복된 교인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불평을 인내심 있게 다시 들어주면서 "다시 차근차근 잘 살펴보겠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와 포용으로 목회자를 대하는 신자들도 더러 있었고, 목회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잊은 채 영적으로 재충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 신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교인들을 목양했던 주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밝았다. 그 날은 무척 힘들고 피곤했다.

그러나 목회자는 혼자자 아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누가 예배에 나왔고,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아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인 작은 교

회 목회자들과 달리 교회의 크기에 꽤넘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나 다른 목회자들의 교회가 아닌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랫동네에 있는 교회가 어제 최고의 출석 인원을 기록했다고 해서 천사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석 인원엔 연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때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충실함을 계속 유지할 때는 기뻐하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는 함께 슬퍼하신다. 우리가 또다시 충실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주일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아신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의 감정이나 교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충실하기만 하면 기꺼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71-73)

목사의 관점에서 쓰인 글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 Point 4: 예수님은 아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 하였도다(계 3:7,8)

## 함께 기도하기

주님, 열매맺는교회가 작은 규모이지만,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에 필요한 일용할 재원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 길을 선한 목자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